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20대의 발달과업 성취가 30대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장기쁨

20대의 발달과업 성취가 30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 상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장 기 뽐

장기뽐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장기쁨

우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점차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성인기 초·중기의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생애주기 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인기 초·중기에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은 성인기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노년기의 우울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성인기 초·중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20대의 요인과, 관련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성인기 초·중기의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Erickson의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1) 20대의 주요 발달과업인 친밀감이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2) 30대의 주요 발달과업인 생산성이 20대의 친밀감과 30대의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로 조작화하였고, 30대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은 ‘역할 만족도’로 조작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울 수준에 대해서는 CES-D를 임상적 척도로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차(2006년)와 11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차 조사시점(2005년)을 기준으로 20~29세의 성인기 초기 74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였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 & Kenny 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Sobel test와, Bootstrapping 절차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대의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통해서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발달과업성취를 통해서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Erickson이 정의한 발달과업에 대한 조작화 과정에 대한 합의가 다소 미흡한 점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다소 모호하게 조작화되어 구체성이 요구되는 점, 단순한 통계분석방법으로 인해 10년간의 종단적 자료에서 변화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인기 초·중기를 대상으로 Erikson이 주장한 발달이론의 적용이 유효함을 밝히고 있는 동시에, 성인기 중기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기 초·중기에 어떠한 변인에 대해 개입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 점에서 합의가 있다. 30대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하

며, 30대에 대해서는 과거의 발달과업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뿐 아니라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역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개입 범위를 진단, 증상관리의 협소한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역할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범위까지를 포함한다는 인식확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우울, Erickson의 발달과업, 친밀감, 생산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역할 만족도

학 번 : 2016-20213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문제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에릭슨의 발달이론	8
제 2 절 성인기 초·중기와 우울	14
제 3 절 사회친분관계 만족과 우울	19
제 4 절 역할 만족과 우울	22
제 5 절 우울과 관련이 있는 기타 요인	25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질문	30
제 1 절 연구모형	30
제 2 절 연구질문	32
제 4 장 연구방법	33
제 1 절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33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5
제 3 절 분석방법	40
제 5 장 연구결과	42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5

제 3 절 표본손실의 영향	49
제 4 절 변수 간 상관관계	52
제 5 절 연구문제 검증	55
 제 6 장 논의 및 결론	 66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6
제 2 절 연구의 함의	69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6
제 4 절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94

표 목 차

<표 1> Erickson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	9
<표 2> 분석에 활용된 변수 정리	39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표 4>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 역할 만족도의 특성 ·	45
<표 5> 30대의 근로유형 및 비경제활동 사유	47
<표 6> 30대 우울수준과 관련된 특성	48
<표 7>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간 특성비교	51
<표 8> 독립, 매개, 통제변수의 VIF값	52
<표 9> 변수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54
<표 10> 20대의 친밀감 → 30대 우울 수준	57
<표 11> 20대 친밀감 → 30대 생산성	60
<표 12> 20대의 친밀감, 30대의 생산성 → 30대 우울 수준 ...	63
<표 1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64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	30
<그림 2> 연구모형 2	31

모 형 목 차

<모형 1>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30대 우울수준	55
<모형 2>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30대 역할 만족도 ...	58
<모형 3>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30대 역할 만족도 → 30대 우울수준	6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고소득 국가에서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 3위를 우울증으로 보고하였고, 2030년이 되면 우울증은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장애보정 생존연수¹⁾에(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 의하면 우울증은 암, 뇌혈관장애와 함께 질병부담이 큰 3대 질환으로 분류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신보건영역에서 우울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2013)에서 발표한 정신건강행동계획(Mental Health Action Plan)에서는 정신건강영역에서 예방과 증진을 위한 전략을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과 관련하여 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및 증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예방적 측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신건강문제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신건

1) 장애보정 생존연수란, 인간의 전체 수명에서 병이나 장애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일원적으로 나타낸 수이다.

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우울 및 불안 등의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국가적 개입이 ‘중증 정신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미비한 모습이다(전진아 외, 2017). 특히 생애주기별로 비교할 때, 성인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내용이 빈약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영유아 및 아동기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을 기점으로 활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마련해가고 있다. 노년기에 대해서도 치매상담센터·노인대학·보건소 등의 기점을 활용할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성인기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산모의 우울증관리, 근로자의 우울증관리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으나(관계부처합동, 2016), 이는 성인기를 대상으로 할 때 매우 부분적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성인기 초기집단²⁾을 대학생으로 국한하게 될 경우, 대학생 외의 집단인 졸업자, 취업준비생, 대학 미진학자 등 정신건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형성될 것이다.

이처럼 성인기의 우울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까지 성인기 집단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영역에서 우울에 대한 증거기반의 실천적 개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어떤 사회적 요인이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과 아동기 및 청소년 연령층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성인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시

2) 본 연구에서 성인기 초기는 20~29세의 대상을 지칭한다.

기에 비해 성인기가 연구 및 국가적인 개입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에서 노년기에 우울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강상경 외, 2008; 김진영, 2009; 정은희, 2015), 노인 우울이라는 사회적 관심도에 기인하여 다수의 노년기 우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기는 신체·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중요성에 기반 하여 많은 우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그간 성인기의 우울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성인기 중에서도 특히 성인기 초·중기의 우울에 대한 개입은 생애주기 상에서 예방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생애주기 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대한 개입 방안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인기 초기에 대한 개입도 전 생애주기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현주 외(2016)의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중기 및 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어지며, 노년기 초기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다.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은 관련성을 보이기 때문에(정은희, 2015), 성인기 초기에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은 성인기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노년기의 우울을 완화하고 우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미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대한 여러 실증적 연구(권태연, 2015; 권호인, 2012; 염소림 외 2014)가 진행되었으나, 성인기 초·중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연구가 아직 국내에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인기의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성인기 초·중기가 다른 연령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을 수는 있으나, 생애주기 상 우울의 영향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지난 2016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의하면, 주요우울장애의 1년 유병률³⁾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대였으며(보건복지부 외, 2016;

3) 지난 1년간 주요우울장애를 경험한 사람으로, 18~29세는 3.0%, 30~39세는 1.2%,

24), 전 연령층에서 우울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대의 남자 특히 미취업층에서 우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외, 2016; 38). 또한 우울이 자살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타나내는 것을 고려해 볼 때(강상경, 2010),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통계는(통계청, 2015) 성인기 초기 시점에서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지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발달에 대해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인 Eric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성인기 초기 시점에서의 발달과업의 성취가 성인기 중기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rickson(1950)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각 생애주기별로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 존재한다. Erickson은 성인기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감으로, 성인기 중기의 주요 발달과업을 생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과업을 적절히 성취할 경우 긍정적인 자아특질이 강화되는 반면, 위기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자아특질이 강화된다. Erickson은 부정적인 자아 특질 중 하나를 우울로 설명하고 있다(Erickson, 1950; 248).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성인기 초기 연령의 친밀감과 우울의 관계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사회변화로 인해 성인기 초기의 친밀감이라는 발달과업성취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유대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가족이 예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이혼 건수는 약 107,300건으로 1994년 65,000건과 비교해볼 때 20년간 약 2배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결혼관계에 기인한 유대감은, 더 이상 고정불변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느끼는 소속감도 감소 추세이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지역사회소속감⁴⁾은 처음 조사된 2013년도에 64점이

40~49세는 1.0%, 50~59세는 1.2%, 60~69세는 1.3%, 70세 이상은 1.5%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외, 2016).

4) 지역사회 소속감은 만 19세~69세 이하를 대상으로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

었으나, 2016년에는 56.9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통계개발원, 2016). 직장에서도 더 이상 소속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실업율은 9.8%를 기록하고 있어(통계청, 2017b) 직장에 소속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 소속되더라도, 그 직장에서 소속감을 갖는 것 또한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이 발표한 ‘한국의 청년 고용 현황과 니트 국제비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15~24세 중 1년 미만 근무 이직 비율이 72.6 %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회원 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신입사원 이직 현황’에도 청년(15~29세) 400만 명 중 63.3%가 1년 3개월 내에 일자리를 그만둔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김기현, 2015). 성인기 초기의 친밀감이라는 발달과업 성취가 성인기 초기 이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면, 위에서 서술한 사회적 변화는 성인기 중기 연령에서의 우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 성취가 향후의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해보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성인기 연구는 주로 성인기 후기⁵⁾에 집중되어 있으며(김순이 외, 2007; 최미경 외, 2010, 한경혜 외, 2002), 성인기 초기에 대한 연구 자체는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연구 대상이 주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김시경 외, 2008; 송지영 외, 2008). 또한 성인기 초기의 특성이, 성인기 초기 이후의 생애주기에 나타나는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신건강 영역에서 성인기 초기에 대한 증거기반의 사회복지적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인기 초기의 어떠한 요인이 향후의 발달과정에서의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5) 성인기 후기를 다른 연구에서는 중년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이, 30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함을 통하여 성인기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기 초기에 친밀감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한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기 초기의 친밀감이 성인기 중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따른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연령별로 우울에 대한 개입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 Erickson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발달은 특정한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전 단계의 발달과업의 성취는 다음 단계의 발달과업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점성적 발달의 형태라고 설명한다(Erickson, 1950; 270-274). 따라서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이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 중기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 성취정도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성취와 성인기 중기의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면, 성인기 중기에는 이에 대한 경로를 고려한 차별화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문제

[연구문제 1]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30대의 발달과업성취는 20대의 발달과업성취와 30대의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에릭슨의 발달이론

Erickson은 Freud의 심리-성적(psycho-sexual)발달 모델을 발전시켜, 전 생애 발달을 설명한 학자이다. Erickson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 주요한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Erickson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는 <표1>과 같이 표현된다(Erickson, 1950:273).

각 발달단계에서 직면하는 심리적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게 되면 긍정적 자아특질이 강화되고,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갈등이 지속되거나 위기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면, 자아 발달은 손상을 받고 부정적 자아특질이 강화된다(권중돈 외, 2008: 275). Erickson은 부정적 자아 특질 중 하나를 우울로 표현하고 있다(Erickson, 1950:248). 이에 본 연구에서는 Erick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발달과업의 성취정도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절에서는 Erickson이 제시한 8단계 중,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과,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표 1> Erickson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

노년기								자아완성 vs 절망
성인기 중기 /후기							생산력 vs 침체	
성인기 초기						친밀 vs 고립		
사춘기 (청소년 년기)					정체성 vs 역할 혼란			
삼재기				근면성 vs 열등감				
남근기			주도성 vs 죄책감					
근육 항문기		자율성 vs 수치심						
구강 감각기	기본적 신뢰 vs 불신							
	1	2	3	4	5	6	7	8

1. 친밀감(intimacy)

청소년기에 형성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인기 초기(young adulthood age)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융합시키려는(fuse) 의지를 갖게 된다. 그러면서 ‘친밀감’ 형성이 성인기 초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이 된다(Erickson, 1950: 263). Erickson이 의미하는 친밀감은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친밀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내적 자원, 그리고 자신의 흥미(excitement)와 개입(commitment)까지의 친밀감을 의미한다. 자신의

중요한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모습이라면, 친밀감 형성이 한정된다고 설명한다(Erickson, 1968:135). 친밀감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해 ‘자기포기(Self-abandon)’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Erickson은 친밀감의 발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결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혼이란 다른 사람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모습이라고 말한다(Evans, 1969).

친밀감과 상반되는 개념은 ‘거리두기(distantiation)’이다. 거리두기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본질에 위협이 되는 대상 혹은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침범하는 대상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친밀하거나 적대적인 관계의 대상이 늘 고정되어 있으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위험이 된다. 성인기 초기에 적절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결정적인 발달과제인 생산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Erickson, 1950; 263-266).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의 친밀감의 성취를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라는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친밀감의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성취할수록, 높은 관계만족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친밀감을 성기기적 특성과 관련지어 정의한 Erickson의 기준에 엄밀하게 비추어 볼 때, ‘친밀감’은 원 가족보다는 타인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 만족을 측정하는 변수 중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생산성(Generativity)

Erickson은 성인기 중기(adulthood stage)의 주된 발달과업으로 ‘생

산성(generativity)⁶⁾을 주장하고 있다. Erickson은 발달 단계 중 생산성의 단계가 빠진 7단계의 발달단계를 설정하다가, 1950년경에 저술한 『Childhood and Society』에서 처음 생산성의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다(박아청, 2005).

Erickson이 말하는 생산성의 본질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끄는 일’에 대한 관심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점진적으로 자아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앞으로 태어날 존재에게 리비도를 돌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Erickson, 1950: 266-268). 나아가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만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lose oneself)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Erickson, 1950: 231). 이러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능력은 이전 단계의 친밀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기 포기’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다. Erickson이 의미하고 있는 생산성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으나, 이는 물질적인 면의 생산성보다는 정신 혹은 심리적인 면에서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rickson이 표현하고 있는 생산성이 단순히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rickson은 생산성(generativity)은 생식성(procreativity)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 존재나 자녀를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생식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한다(Erickson, 1959:103). 부모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나, 다른 방면에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무엇인가에 전념하면서 이를 창조성(creativity)이나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Hall, 1983).⁷⁾ Erickson이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lose oneself)은

6) Erickson은 생산성(generativity)라는 용어가 생식성(procreativity), 생산성(productivity), 그리고 창조성(creativity)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창조성과 같은 다른 용어는 특수한 대상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생산성(generativ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Evans, 1969).

7) 한 예시로 자녀가 없는 예술가나 작가, 교사가 자신의 일을 통하여 생산성을 승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몰두’와 ‘전념’, ‘열중’에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Erickson은 생산성에 필요한 덕목을 ‘전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한다(박아청, 2005). Erickson은 이 시기에 생산성이라는 발달과업이 적절하게 성취되면, ‘배려(care)⁸⁾’라는 덕성이 발달한다고 설명한다(Evans, 1969).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의 성취를 ‘역할 만족도’라는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위의 Erickson의 정의에서 나타났듯이 생산성은 부모의 역할이나 직업적 성취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이라는 발달과업의 성취가 높을수록, 높은 역할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한다.

3. 점성적(epigenesis) 발달⁹⁾

Erickson은 자신의 발달이론을 점성적(epigenesis¹⁰⁾) 발달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Erickson이 처음 사용한 점성적 발달이라는 용어는 자궁 내에서 유기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Erickson은 각 발달단계들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계획(ground plan)에 근간하여 발달되고 분화되며, 각 발달단계의 성장이 특별히 중요해지는(ascendancy) 시기가 있고, 인간이 온전히 기능적인(functioning whole) 형태로 형성될 때 까지 각 부분의 발달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Erickson, 1968: 93-94).

8) Erickson의 배려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to care to do)’상태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돌보는(care for)’상태, 보호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관리하는(take care of)’ 상태,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무엇인가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take care not to)’ 상태를 표현한다(Evans, 1969).

9) ‘epigenesis’라는 용어는 ‘점성적 발달’, ‘발달분화’, ‘보다 기초적인 것 위에’ ‘보다 미분화 된 것이 시간과 함께 다음으로 분화되어가는 발달의 양상’등으로 다양하게 번역, 해석되고 있으나(박아청, 2007) 본 연구에서는 ‘점성적 발달’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10) ‘Epi’는 ‘위에(upon)’이라는 뜻이며, ‘genesis’는 ‘출현(emergency)’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아청(2007)의 연구에서는 Erickson이 발달에서 기본 계획(ground plan¹¹⁾)이라는 설명을 붙인 것은 ‘발달의 전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박아청(2007)은 Erickson의 점성적 발달이란 각 부분이 분화하여 발달을 진행하면서, 각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해가기까지 발달을 진행하는 점진적인 발달이라고 설명한다.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은 대각선 상단의 방향으로 진행되며, 위기에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진행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표1>에서 나타난 과업들은 결정적 시기를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며, 각각의 시기의 특성들은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일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Erickson, 1950:271)

<표1>에서 논의되는 각 단계의 발달과업들은 다른 단계의 발달과업들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적절한 발달은 적절한 순서(sequence)에 의해 이루어진다(Erickson, 1968:93-95).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발달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른 항목 위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정 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이전 단계의 성패와 직결된다. 하지만 발달의 속도와 강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Erickson, 1950; 270-274).¹²⁾

본 연구는 Erickson이 주장한 점성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의 성취정도가 그 다음 단계인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이 성인기 중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이 매개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11) Erickson의 원서에는 점성적 발달에 대한 설명을 ‘ground plan’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박아청(2007)에 연구에서는 이를 ‘grand’ plan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가 사용한 ‘ground pl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2) Erickson은 발달단계에서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속도 및 강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I-1에서 II-2로 넘어가는 과정이, I-1에서 I-2를 거쳐 II-2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I-1에서 II-1로 넘어가 II-2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Erickson, 1950; 271-272).

제 2 절 성인기 초·중기와 우울

1. 성인기 초·중기와 우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을 중심으로 한 매우 넓은 범위의 정신과적 문제이다. 우울증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로, 우울감이 대표적이 예이다. 우울감은 불행감, 마음이 괴로움, 슬픔, 낙담, 공허함 등의 부정적인 정동이 지속되는 감정적 상태이다.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울감 이외의 증상으로는 불쾌한 사건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 즐거운 사건에 대한 감수성의 감소, 무쾌감증(anhedonia), 무감동(apathy), 정서적 둔마 등의 형태가 있다(우영섭 외, 2013: 85-86). 이로 인해 흥미의 저하, 불면증 등 수면장애, 식욕 저하 또는 식욕증가와 관련된 체중 변화, 주의집중력 저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살시도,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 학업능력저하, 생산성 저하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국가건강정보포털, 2017).

주요 증상이 연령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짜증, 반항, 등교거부, 성적저하, 여러 가지 신체증상, 약물남용, 비행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성인기의 경우는 건강염려증, 죄책감, 의심, 절망감, 공허감, 건망증, 빈둥지 증후군, 화병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년기의 경우에는 모호한 신체증상, 불면, 불안,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보건복지부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와 중기의 우울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성인기 초·중기의 우울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령에 따른 우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혼인, 고용, 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한 국외 연구에서는, 우울과 연령이 U자 곡선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Kessler et al., 1992; Mirowsky et al., 1992; Mirowsky et al.,

2007; Schieman et al., 2001).¹³⁾ U자 관계란, 우울이 성인기 초기에서 성인기 중기로 갈수록 감소하며, 성인기 후기에 최저점을 도달한 후 노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한 김진영(2009)의 연구¹⁴⁾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우울과 연령이 오른쪽으로 약간 눕혀진 J형태의 곡선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즉 20대 집단에서 30대로 가면서 우울이 약간 감소하다가, 성인기 중기를 거쳐 노년에 이르면 우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나, 공통적으로 성인기 초기에서 중기로 갈 때에는 우울이 감소하고, 성인기 중기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과 우울에 관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인기 초기와 중기의 우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울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의 우울과 연령의 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모습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Mirowsky(1992)의 연구에서는 민족, 성별, 교육수준, 고용지위, 결혼지위, 소득, 경제적 지위, 삶에 대한 통제, 질환을 통제한 후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성인기 초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연령의 증가가 성숙으로 이어져 우울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비슷한 방법론으로 국내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김진영(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 결혼지위, 고용지위, 소득, 경제적 곤궁, 만성질환 유무를 통제한 결과 성인기 초기에서 성인기

13) Kessler et al.(1992)는 1986년의 미국 성인과 1987, 1988년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Mirowsky et al.(1992) 1990년의 미국 성인과 1980년의 일리노이 성인을 대상으로, Mirowsky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1995년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Schieman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1996~1998년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14) 본 연구는 2006년 1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중기까지는 우울이 오히려 증가하다가, 성인기 중기에서 노년까지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성인기 초기와 중기는 타 연령에 비해 우울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회현상에서는 노년기로 갈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인 우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노년기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고명진 외, 2017; 김동배 외, 2005; 유성원 외, 2014; 이현주, 2013). 반면 성인기 초기의 우울수준은 노년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기 초기 및 중기의 우울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성인기 초기 우울의 예방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성격유형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과 관련한 연구, 혹은 유전적 요인,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시경 외(2008)의 연구는 초기 성인기 우울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송지영 외(2008)의 연구는 성인기 초기 우울문제에 대한 관리모형을 제시하며 성인기 초기시기의 우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의료적 치료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우울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인들을 탐색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두 연구 모두 실제적인 연구대상은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연구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성인기 초기 연령 대상을 대학생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성인기 초기의 사회적 변인과 향후 우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다. 이상을 살펴볼 때, 성인기 초기의 사회적인 요인과 향후 우울과의 관련성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미비하다. 또한 성인기 초기의 사회적 변인이, 성인기 초기 이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종단적 성격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우울에 대한 증거기반의 사회복지적 정책수립 및 실천을 위해서는,

우울과 관련된 사회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 성취가 성인기 중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중단적 성격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이 성인기 중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이 매개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우울에 대해 각 생애주기별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인기 초·중기의 연령 정의

성인기 초·중기¹⁵⁾의 연령을 정의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현승(2014)의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를 넓은 범위로 간주하였는데, 만 17세에서 40세까지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은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20세 이상부터 30세 미만까지를 성인기 초기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송지영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를 대학생으로 간주하여, 성인기 초기를 매우 협소한 연령층으로 정의하였다. 강상경 외(2008)의 연구에서는 29세 이하(청년기), 30~39세(성년기), 40~49세(중년기), 50~64세(장년기), 65세~74세(노년초기), 75세 이상(노년후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상경 외(2008)의 연구의 연령 기준을 따라가되, 용어에 대해서는 20세 이상부터 29세 이하까지를 성인기 초기로 정의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성의 성취는 결혼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으며 한 시점에서의 발달과업의 성취는 다음 발달단계로의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30세를 기준으로 결혼유무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⁶⁾.

15) ‘성인기 초기’라는 용어는 ‘청년기’라는 용어와 같이 혼용되고 있으나 청년기라는 용어가 청소년기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송명자, 2008; 정옥분, 2015),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6) 2016년 통계청의 기준에 의하면, 남자의 초혼연령은 32.79세로, 여성의 초혼연

또한 본 연구에서는 3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를 성인기 중기¹⁷⁾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성인기 중기라는 개념이 30~39세만의 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기 중기는 30대 이후 연령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Erickson의 이론에 의하면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은 노년기 이전까지의 발달과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중기 중 30~39세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성인기 초기 대상자들의 10년 후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20~29세를 20대로, 성인기 중기에 해당하는 30~39세의 연령을 30대로 명명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령은 30.11세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a).

- 17) 강상경 외(2008)의 연구에서는 30~39세를 성년기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라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인기 중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39세를 성인기 중기로 명명하기에, 성인기 중기의 범위 자체를 좁게 제한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30~39세가 성인기 중기에 포함된다고 간주할 뿐이며, 성인기 중기 자체가 30~39세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 3 절 사회친분관계 만족과 우울

사회적 친분관계는 이웃, 친구, 주변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친분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란 자신의 전반적인 친분관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여 얻게 되는 주관적 느낌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조은영 외(2005)의 연구에서 한국의 19~32세의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게는 대인관계와 결혼, 진로직업, 여가가 주된 관심사로 나타났다. 성인초기의 주된 관심사가 대인관계와 결혼 등 관계적 측면이 나타나는 것은, Erickson이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을 ‘친밀감’으로 정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사회적 친분관계로 해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심리학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대인관계는 사회인으로서의 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친밀한 대인 관계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수명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한규석, 1995).

Veroff와 그의 동료들(1981)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은 동년배의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물질적·심리적 상보성,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에 기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영국 런던에서 114명의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458명의 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Brown and Harris(1978)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없으면서 생활스트레스를 받은 여자들의 41%가 심한 우울을 호소하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정도의 여자만이 심한 우울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치료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는 대인관계를 우울증 질환의 선행요인으로 보기 때문이

다(Klerman, 2002).

다양한 연령에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Erickson이 성인기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라고 주장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회친분관계 만족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관해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행위를 증진시킨다는 연구와(Norris et al., 1984), 과거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hen et al., 1985) 모두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성인의 경우에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외, 2011).

또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라는 변수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속감 지지(belonging support)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김정선 외, 2004). 제주도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옥, 2011). 노년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지지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이평숙 외, 2004).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성인기 초기의 부분집합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박영례 외, 2013).¹⁹⁾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어 고립이 진행될 경우 우울이 심화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조옥희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으로 조사하였을 때 사회적 고립과 우울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가 우울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Taylor와 그의 동료들(2018)의 연구에서는

19) 다만 박영례 외(2013)의 연구와 박은옥(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물질적 지지·애정적지지·긍정적 상호작용·정보적 지지를 포괄하는 범위이므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관계만족보다는 다소 광범위한 범위를 의미한다.

5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은 우울과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Matthews과 그의 동료들(2016)에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사회적 고립이 반드시 외로움(loneliness)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고립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우울감이 높아지기 쉽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회적 고립이라는 객관적인 상태보다, 외로움이라는 주관적인 상태가 우울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에 대해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계만족과 관련된 변수가, 현 시점의 우울이 아닌 향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울의 예방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한 시점의 변인이 이후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ic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성인기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이 성인기중기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20대의 주 발달과업을 나타내는 변인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정도가 30대의 우울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제 4 절 역할 만족과 우울

역할이란 개인에게 특정 지위에서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의미하며(Muchinsky, 2006: 363), 역할 만족이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얻게 되는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안숙희, 2004).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별로 중요시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인의 발달과업을 조명한 김종서 외(1982)의 연구에서는 25~35세의²⁰⁾연령에 발달과업은 ‘직업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 정보, 기능을 발전시키기’,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만족스럽고 보람 있게 수행하기’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조은영 외(2005)의 연구에서 한국의 33세~52세의 성인중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게는 직업과,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가 가장 높은 관심사로 나타났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30대의 주된 역할은 직업 활동과 자녀양육일 것이다. 이는 Erickson이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을 ‘생산성’으로 정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30대의 역할 만족도의 ‘역할’에 대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가사와 양육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Erickson이 주장한 생산성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끄는 일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성은 객관적인 성취 지표라기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지표에 가깝다. 이에 본 연구의 주 이론근거인 Erickson의 생산성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표로 조작화 하는 것이 본 정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역할 만족도 또한 조사대상자가 스

20) 본 연구에서는 1982년의 연구로, 약 40년 전의 연구이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1980년대의 25세-35세의 발달과업을 30대의 발달과업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보고하여 측정된 항목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지표에 속한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역할 만족도는 실제적인 생산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와 직무성과(job performance)의 관계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Judge et al.(2001)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만족도와 직무성과는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다른 변인들이 만족-수행 관계의 강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보고한 사람이라도 다른 수준의 수행 정도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Kraus, 1995). 그러나 조직차원에서 직무만족과 직무수행의 관계를 연구한 Ostroff(1992)의 연구에서는 조직 전체수준에서는 직무만족과 수행의 관계가 모든 수행지표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역할 만족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역할 만족과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직무만족도와 우울의 부적 상관관계는 다양한 대상층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직장인 대상(이혜경 외, 2015), 자영업자 대상(Bradley et al., 2004), 지방공무원 대상(엄태순 외, 2013), 맞벌이 부부 대상(김경애 외, 2010)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우울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 역할 외에 가사 및 양육의 역할 만족과 우울에서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만족도와 건강상태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안숙희(2004)는 역할 만족도와 우울 간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 역할 만족이 높은 군이 어머니 역할 만족이 낮은 군보다 우울수준이 낮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30대

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과정에서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Erickson의 점성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친밀감의 성취가 역할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Moore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는 방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사회적 친밀감(social intimacy)이 직업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친밀감이나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한혜림, 2018; 김다래, 2016) 부모역할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김다래, 2016; 김문정,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대 역할 만족도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제 5 절 우울과 관련이 있는 기타 요인

우울과 관련이 있는 기타 요인 중 위의 절에서 살펴보지 않은 요인을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 20대 우울여부를 사용하고 있다. 연령에 대해서는 앞선 절에서 이미 설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 가구소득, 만성질환, 과거의 우울이 이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성별은 우울 연구 중 가장 많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변수이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도 남성의 기분장애 유병률은 3.3%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7.2%로 2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외, 2016). 또한 많은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수준이 높다고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Weissman et al., 1977; Weissman et al., 1993; Mirowsky, 1996).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한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별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면이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잘 공유하는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감정적 문제를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Allen et al., 1998). 또한 여성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Zunzunegui et al., 2007). WHO(2001)는 정신건강에 대한 성별차이를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의 차이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가지는 소득, 고용, 사회적 위치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차이와 정신건강 수준에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한경혜 외(2002)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30-5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여부 변수가 분석모델에 포함되자 성별효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 우울에 대해 살펴보자.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Mills et al., 2001).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주변의 자원들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Lantz, et al., 2005). 국내에서도 고졸 이하의 집단이 대학 이상의 집단보다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상경 외, 2008).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도 기분장애 1년 유병율이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외, 2016).²¹⁾

셋째, 경제적 지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은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인해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화된다고 설명하는 한편(Gallo et al., 2005; Kaplan et al., 2008), 사회적 선택론(Social selection theory)은 취약한 정신건강으로 인해 가구나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Hamilton et al., 1997).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적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방향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정은희, 2015).

하지만 Dehrenwend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2)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에 따라 사회원인론과 사회선택론이 상이하게 채택되는 모

21)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기분장애 일년 유병율이 무학에서는 0.6%, 1~6년에서 2.3%, 7~9년에서 2.3%, 10~12년에서 2.1%, 13년 이상에서 1.7%가 나타났다.

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병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은 사회적 선택 이론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나, 우울은 사회적 원인가설을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중 우울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원인론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낮은 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먼저 Pabayo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4)에 의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가중시켜 우울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낮은 경제적 지위가 야기하는 스트레스(Belle, 1990),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제적 곤궁이 우울을 높인다고 주장한다(Heflin et al., 2009). Belle(1990)은 낮은 경제적 지위가 스트레스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울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실증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연령에서 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기에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며(Tracy et al., 2008; 김연희 외, 2008), 인구 전체 집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소득, 주관적인 가족수입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준모, 2010a). 한국 노인의 우울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월수입, 주관적 경제수준이 노인의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밝혀졌다(김동배 외, 2005). 정은희(2015)의 연구에서도 성인기에는 근로의 영향이 노년기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넷째, 만성질환과 우울과의 관련성은 노년기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노년기 우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나 만성질환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승덕 외, 2001; 이현주 외, 2016). 임지혜(2014)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개수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이미숙(2010)

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7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환이 노인의 우울 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생의학적인 기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적인 불편함이 우울에 영향을 주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어 우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미숙, 2010).

Moussavi와 그의 동료들(2007)의 연구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도, 우울과 만성질환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나며, 우울과 만성질환이 동반될 경우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성인 대상으로 우울 및 만성질환과의 동반양상에 대해 연구한 전진아 외(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성인의 약 12%가 우울과 만성질환의 동반양상을 보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반양상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을 포함한 기분장애의 경우 만성위염, 만성요통, 알레르기와의 복합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전진아, 2014a).

하지만 본 연구대상의 연령이 20대~3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전진아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만성질환을 동반한 비율이 65세 이상에서는 20.6%로 나타났으나, 19~24세는 1.9%, 25세~34세에서는 1.8%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경우이다. 20대의 경우 노년기에 비해 만성질환을 동반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만성질환이 우울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인기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는 만성질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오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20대의 만성질환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우울 정도가 향후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의 우울여부 자체가, 성인기 중기의 우울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과거의 우울 여부가 이후의 우울여부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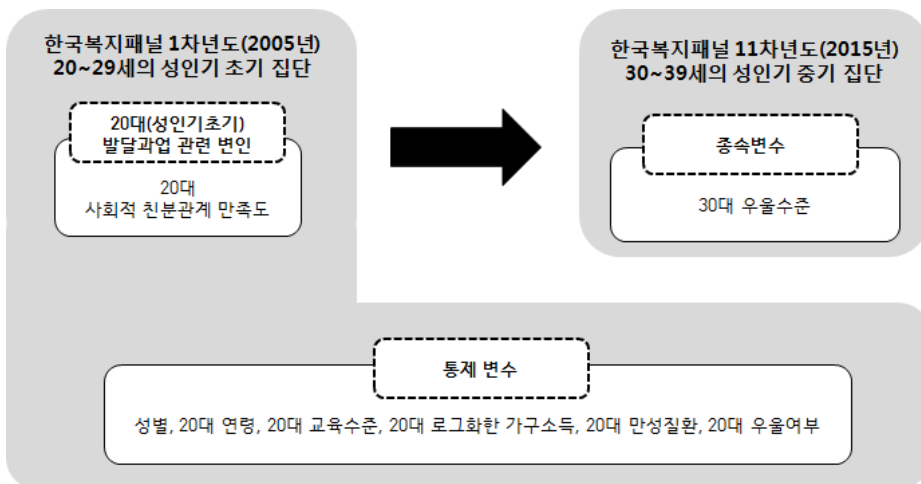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울궤적연구를 살펴보면 초기값에 따른 우울 변화율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연구에 의하면 변화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우울증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강상경 외, 2015; 정은희, 2015).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우울수준이 아니라 임상적인 우울여부를 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CES-D의 16점 기준으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을 설정하여 우울여부로 통제를 시도하였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질문

제 1 절 연구모형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먼저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이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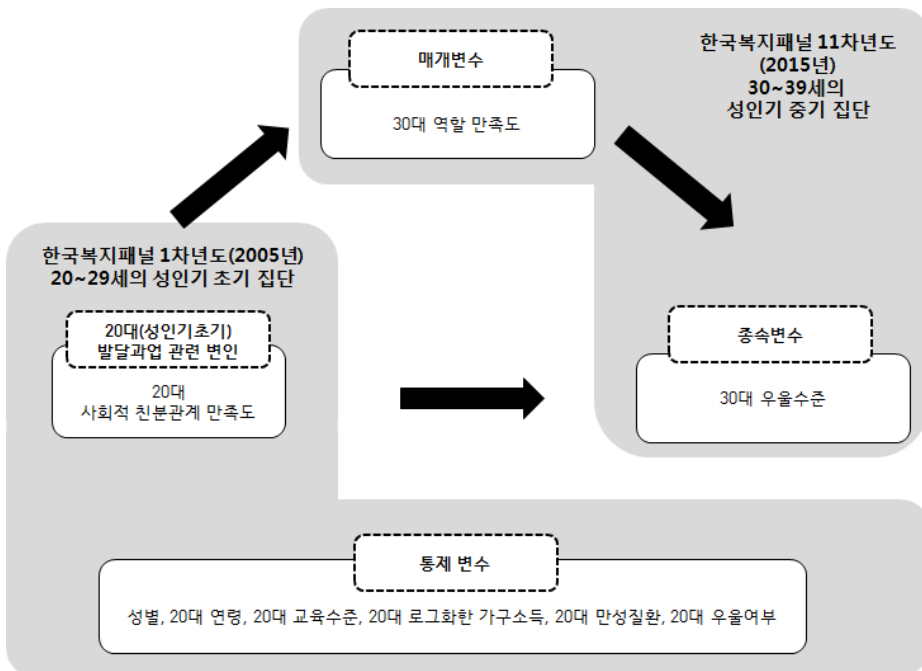
먼저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조작화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30대의 우울수준을 활용하고 있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 20대 우울여부를 투입하였다.

다음으로는 30대의 발달과업이 20대의 발달과업과 30대의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

림2>와 같다.

30대의 발달과업인 생산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역할 만족도’를 조작하여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통제변수는 연구모형 1과 동일하다.

<그림 2> 연구모형 2



제 2 절 연구질문

[연구문제 1]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1-1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30대의 발달과업성취는 20대의 발달과업성취와 30대의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질문 2-1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2-2 30대 역할 만족도는 30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2-3 30대의 역할 만족도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주관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차(2006년)와 11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도 11차년도까지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별, 소득계층 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1차 한국복지패널 표본 규모는 7,000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부가조사대상으로 구분되었다. 패널가구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위 소득 60% 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2006:31-34).

이후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조사탈락대상자를 감안하기 위해 7차년도에 1,800가구의 신규패널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 모두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신규 패널의 투입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국내의 여러 가지 패널자료 중에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이 성인기 초기와 중기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10년간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종단적 성격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 패널에서는 우울수준을 질환여부로 반영하거나 혹은 우울정도에 대해 한 문항으로 단순하게 측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수준을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CES-D라는 임상적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1차 조사와 11차 조사를 모두 참여한 가구원 중, 1차 조사 시점(2005년)기준으로 20~29세의 성인기 초기²²⁾를 대상으로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본 대상자는 11차 조사 시점에서 30~39세의 연령구간에 포함되며, 성인기 중기에 해당된다. 1차 조사에 응답한 20대는 총 1,874명이었으며, 그 중 11차 조사에 1,030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차와 11차 조사를 모두 참여한 20~30대 대상자는 모두 844명이었다. 이 중 최종모형에서 각 변수의 결측값을 제외하여 실제로 분석 대상자가 된 대상자는 844명중 748명(88.6%)이다.

한국복지패널의 1차와 11차의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11차 자료가 한국복지패널 중 가장 최신의 자료이며, 11차 자료를 기준으로 10년 전의 특성을 나타나는 것이 1차 자료이기 때문이다.

22) 1977년~1986년 사이에 출생한 대상자를 의미한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30대의 우울 수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성인기 중기(30~39세)의 우울 여부이며 1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성인기 중기 대상자는 11차 조사 기준 연도(2015년)를 기준으로 30~39세의 연령구간에 포함되는 대상자로, 1차 조사(2005년)에 응답하였던 성인기 초기 대상자들이 10년이라는 시점의 변화 후에 성인기 중기를 맞이한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11(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데이터를 활용하였다. CES-D는 미국 정신보건 연구소(NIMH)에서 개발한 도구로, 신승철 등(1991)이 번안 연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실천 및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기존 CES-D의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여자에 따라 20문항이 부담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면서 Kohout(1993) 등은 CES-D의 척도의 문항수를 10-11개의 문항으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는 CES-D를 11개로 줄인 문항이 활용되고 있으며, 허만세 외(2015)의 연구에서 11개 문항 척도의 측정불변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에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우울척도는 다른 변수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변수들은 조사 기준연도(2015년)에 대한 응답이지만 우울척도는 조사시점(2016년)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1주일간의 우울을 측정하였다. 11개의 항목에 대해 4점 등간척도(1=일주일에 1일 미만, 2=일주일에 1~2일간, 3=일주일에 3~4일간, 4=일주일에 5일 이상)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11개의 항목은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 비교적 잘 지냈다.’, ‘㉢ 상당히 우울했다.’,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㉞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㉟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㊱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㊲ 마음이 슬펐다.),'㊳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㊴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1~4 점 척도를 0~3점 척도로 재구성 한 후, 긍정적인 항목인 ㉞와 ㉟항목을 역 채점하여 11개의 항목을 합산할 것이다. 이 후, 합산한 값에 20/11을 곱하여 점수를 도출한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높은 점수가 나타날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료상에서 우울 문항간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86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2.1 20대 발달과업 관련 변인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변수를 활용할 것이다. 20대의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2005년을 조사시점으로 측정한 1차 한국복지패널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이란 개인이 인지한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며, 사회관계 만족에 관한 질문 또한 한국복지패널에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을 측정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의 5점 서열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이다.

2.2 30대 발달과업 관련 변인 : 역할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30대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역할 만족도 변수를 활용할 것이다. 30대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2015년을 조사시점으로 측정한 11차 한국복지패널의 역할 만족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역할 만족도는 개인이 인지한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하며, 역할 만족에 관한 질문은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을 측정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직업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의 5점 서열척도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이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직업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라고 기입되어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본 항목에 대해 “직업 만족도”라고 명명하였으나, 본 항목에 응답한 30대의 근로유형을 살펴보면 미취업자가 25%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30대 중 직업이 없는 응답자가 25%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 직업 만족도보다는 ‘역할 만족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역할 만족도’로 본 변수를 재명명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인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만성질환과 20대 우울여부를 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대의 성인지 초기 특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 또한 20대 시점에 조사된 변수들을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성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측정된 남자=1, 여자=2를 여자=0, 남자=1로 변수를 조작하여 활용하였다.

20대 연령은 출생연도에서 1차 한국복지패널 자료 조사 기준연도

(2005년)를 뺀 후 1을 더하여, 만 나이가 아닌 한국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으로 조작화를 진행할 것이다. 연령은 20세에서 29세까지 구성되었다.

20대 교육수준은 자기보고식 9점 서열척도로 측정되었다. 9점 척도는 '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전문대학, 7=대학교, 8=대학원(석사), 9=대학원(박사)'로 구성되어있다.

20대 경제적 지위는 가구의 경상소득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가구의 경상소득은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지구,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20대 만성질환은 가구원의 투병/투약 기간을 통하여 만성질환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가구주가 일괄적으로 가구원의 만성질환정도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만성질환을 측정하는 항목은 4점 서열척도이며, '0=비해당, 1=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2=3~6개월 투병/투약하고 있다. 3=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로 구성되어있다. 본 항목은 지속적으로 투병/투약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20대의 우울여부는, 종속변수의 우울측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다른 통제 변수들은 조사 기준연도(2005년)에 대한 응답이지만 우울척도는 조사시점(2006년)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1주일간의 우울을 측정하였다. CES-D-11(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데이터를 활용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의 조작 및 합산방식과 동일하게 더미 변수화 할 것이다. 16점 이상은 우울 집단(=1)이며 16점 미만은 비우울 집단(=0)이다. 우울 측정 문항간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866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에 활용된 변수 정리

변수			값
종속 변수	30대 우울 수준		항목이 높을수록 높은 우울수준
독립 변수	성인기 초기 발달과업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매개 변수	성인기 중기 발달과업	30대 역할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통제 변수	성별		0=여자, 1=남자
	20대 연령		21세 ~ 29세
	20대 교육수준		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대학, 6=전문대학, 7=대학교, 8=대학원(석사), 9=대학원(박사)
	20대 경제적 지위		자연로그화한 가구 경상소득
	20대 만성질환		0=비해당 1=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2=3~6개월 투병/투약하고 있다 3=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20대 우울여부		우울집단 = 1 (CES-D 16이상) 비우울집단 = 0 (CES-D 16미만)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통계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PSS v.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수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개변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해봄으로써, 매개변수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산팽창인차(VIF)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는지를 재검토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탈락자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분석집단과 표본탈락집단의 특성을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다섯째,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기초로 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이 고안해 낸 Sobel test와, Shrout&Bolger(2002)가 제시한 Bootstrapping 절차를 활용해 검증하였다.²³⁾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Sobel

23) Spss v.23 프로그램을 통해 Sobel test 및 Bootstrapping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Andrew F. Hayes가 고안해 낸 process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해야 가능하다. process v 16.3 프로그램은 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test에 대한 한계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Sobel test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투입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의 독립변수의 계수 $a^{24)}$ 와,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의 매개변수의 계수 $b^{25)}$ 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²⁶⁾. Sobel 검증에서는 ab 가 정규분포를 한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본 가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Mackinnon et al.(2002)는 Sobel 검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Hayes(2009), Shrout & Bolger(2002)는 Bootstrapping을 통해 ab 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844명으로 1,000미만이기 때문에 Sobel검증과 Bootstrapping의 2가지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4) 식으로 나타내면 $M = i_2 + aX + e_2$ 의 계수 a 이다. 본 모형은 Baron & Kenny가 제시한 매개변수의 2단계 모형이다.

25) 식으로 나타내면 $Y = i_4 + c'X + bM + e_3$ 의 계수 b 이다. 본 모형은 Baron & Kenny가 제시한 매개변수의 3단계 모형이다.

26) Sobel 검증을 위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z 값을 구하여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한다.

$$Z_{ab} = \frac{a \times b}{\sqrt{(a^2 \times se_b^2) + (b^2 \times se_a^2)}}$$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기준으로 20대인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466명	55.2%			
	남성	378명	44.8%			
20대우울	우울	126명	14.9%			
	비우울	661명	78.3%			
	결측값	57명	6.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대값	최소값
20대 교육수준	6.12	0.9422	-0.561	-0.048	8	2
20대 연령	25.11	2.8153	-0.318	-1.024	29	20
20대 만성질환	0.10	0.5336	5.117	24.575	3	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댓값	최솟값
연간 가구소득 (단위:만원)	3439.59	2405.44	1.743	4.617	17108.0	-2009.0
로그화한 연간 가구소득	7.92	1.79	-1.259	6.460	9.75	1.79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844명 가운데 여자가 466명(55.2%), 남자가 378명(44.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우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26명(14.9%)이 우울군에 속하였으며, 661명(78.3%)이 비우울군에 속하였고, 57명(6.8%)이 우울 관련 항목에서 결측값으로 보고되었다.

20대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은 약 6.12로 전문대학과 대학교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942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관련된 왜도는 -0.561, 첨도는 -0.048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8(대학원 석사), 최솟값은 2(무학)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25.11세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2.82세로 나타났다. 연령과 관련한 왜도는 -0.138, 첨도는 -1.024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29세, 최솟값은 20세로 나타났다.

20대의 만성질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평균은 0.1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5336로 나타나,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왜도는 5.117, 첨도는 24.575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3(6개월 이상 투병/투약), 최솟값은 0(비해당)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34,395,900원이 평균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24,054,400원으로 나타났다. 연 가구소득의 최솟값은 -20,09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171,080,000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의 왜도는 1.743, 첨도는 4.61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자

연로그화한 연간 가구소득의 평균은 약 7.92, 표준편차는 1.79로 나타났다으며, 최솟값은 1.79, 최댓값은 9.75로 나타났다. 자연로그화한 연간 가구소득의 왜도는 -1.259, 첨도는 6.46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절에서는 연구의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 변수인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매개변수인 30대 역할 만족도를 살펴보고, 기술통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할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30대의 우울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볼 것이다.

<표 4>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 역할 만족도의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결측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3.68	0.7017	-0.662	1.024	53명 (6.3%)
30대 역할 만족도	3.54	0.7987	-0.833	0.515	51명 (6.0%)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역할 만족도의 분석결과는 위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이 약 3.68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0.7017점으로 나타났다. 결측대상자는 53명(6.3%)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이 약 3.54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0.7987점으로 나타났다. 결측 대상자는 51명(6.0%)였다.

Kline(2011)는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며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왜도는 -0.662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1.024로 나타났다. 30대의 역할 만족도의 왜도는 -0.833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0.51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주요 변수들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응답한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역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30대의 근로유형과 비경제활동 사유를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대한 문항 측정은 “직업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직업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라는 문장이 유의사항으로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문항은 응답자의 근로유형과 비경제활동 사유에 따라서 응답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응답자가 생각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 30대의 근로유형 및 비경제활동 사유

변수	구분	빈도	비율
30대 근로유형	임금근로자	538명	63.7%
	자영업/고용주	66명	7.8%
	무급가족종사자	20명	2.4%
	미취업자 (근로능력있음)	210명	24.9%
	미취업자 (근로능력없음)	1명	0.1%
	결측값	9명	1.1%
30대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무능력	4명	0.5%
	군복무	0명	0%
	정규교육기관학업	4명	0.5%
	진학준비	0명	0%
	취업준비	27명	3.2%
	가사	74명	8.8%
	양육	66명	7.8%
	간병	0명	0%
	구직활동포기	6명	0.7%
	근로의사없음	17명	2.0%
	기타	2명	0.2%
	전체	200	23.7
	결측값	644	76.3

먼저 30대의 근로유형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538명(63.7%), 자영

업/고용주 66명(7.8%), 무급가족종사자 20명(2.4%), 미취업자-근로 능력 있음 210명(24.9%), 미취업자-근로 능력 없음 1명(0.1%)으로 나타났으며, 결측대상자가 9명(1.1%)로 나타났다. 이는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응답한 사람 중 약 75%는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약 25%는 미취업자로서 직업 이외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30대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응답자 844명중 200명이 본 항목에 대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사 74명(8.8%)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육 64명(7.8%)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취업준비 27명(3.2%), 근로의사없음 17명(2.0%), 구직활동포기 6명(0.7%), 근로무능력 4명(0.5%), 정규교육기관학업 4명(0.5%), 기타 2명(0.2%)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 만족도에서 미취업자로 응답한 대상자의 대부분은 가사 및 양육으로 인해 직업을 유지하고 않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준비로 인해 직업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30대 우울수준과 관련된 특성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댓값	최솟값
30대 우울수준	3.98	6.6255	2.392	6.45	41.82	0
	결측값	51명(6.0%)				
	총합	844명(100%)				

또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30대의 우울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은 약 3.98점, 표준편차는 약 6.6255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솟값은 0점, 최댓값은 41.82점이며, 왜도 2.392점, 첨도 6.45점으로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측 대상자는 51명(6.0%)로 나타났다.

제 3 절 표본손실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와 11차년도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30대는 총 1874명이다. 이 중 1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844명이며,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030명으로 나타났다. 즉 1,030명의 표본이 탈락된 것이다. 체계적인 표본 탈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되는 동시에,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표본의 탈락이 체계적으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1차년도와 11차년도에 모두 조사를 참여한 집단과 11차년도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표본에서 탈락한 집단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탈락이 일어났다면 두 집단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T검정을 통해서 두 집단 간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래의 <표8>은 분석집단과 탈락집단을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30대의 역할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정도는 11차년도의 응답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단 간 특성비교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통제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수준, 20대 우울여부에 대한 특성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서 경미한 평균차이는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분석집단의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3.68로 나타났고, 탈락집단의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6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0.20$, $p=0.842$). 성별에 대한 분석집단의 평균은 0.45로 나타났고 탈락집단의 평균은 0.43으로 두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t=0.687$, $p=0.492$). 20대 연령에 대해서 분석집단은 평균 25.11세를 나타냈고, 탈락집단은 평균 24.88세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1.769$, $p=0.077$). 20대 교육 수준에 대해서 분석집단은 평균 6.12, 탈락집단은 평균 6.1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t=1.081$, $p=0.783$). 20대 우울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집단 평균 0.16, 탈락집단 평균 0.1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1.081$, $p=0.280$). 20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분석집단 평균 0.10, 탈락집단 평균 0.0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0.882$, $p=0.378$).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에 대해서 분석집단 평균은 7.92, 탈락집단 평균 7.9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0.777$, $p=0.437$). 즉 집단 간 특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는 표본탈락이 비체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표본탈락이 본 연구의 결과 및 대표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간 특성비교

변수	집단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t	p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분석집단	791	3.68	0.702	-0.200	0.842
	탈락집단	931	3.69	0.690		
성별	분석집단	844	0.45	0.498	0.687	0.492
	탈락집단	1030	0.43	0.496		
20대 연령	분석집단	844	25.11	2.815	1.769	0.077
	탈락집단	1030	24.88	2.785		
20대 교육수준	분석집단	844	6.12	0.942	-0.275	0.783
	탈락집단	1030	6.13	0.927		
20대 우울여부	분석집단	787	0.16	0.367	1.081	0.280
	탈락집단	927	0.14	0.349		
20대 만성질환	분석집단	844	0.10	0.534	0.882	0.378
	탈락집단	1030	0.08	0.475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분석집단	838	7.92	.744	-0.777	0.437
	탈락집단	1018	7.95	.719		

*p<.05, **p<0.01, ***p<0.001

제 4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가설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독립 및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8>와 같다.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0.8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Gujarati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0.3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시사되고 있지 않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보았다. 또한 VIF값이 10이 넘을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Myers, 1990). 하지만 본 연구의 변수의 VIF값이 모두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VIF값은 아래의 <표 8>와 같다.

<표 8> 독립, 매개, 통제변수의 VIF값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 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 질환	20대 우울 여부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30대 역할 만족도
VIF	1.026	1.035	1.091	1.059	1.032	1.041	1.081	1.030

또한 주요변수와 종속변수 간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수준간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r=-0.109$, $p=0.003$). 매개변수인 30대 역할 만족도와 30대 우울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r=0.301$, $p=0.000$)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매개변수인 30대 역할 만족도의 단순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0.122$, $p=0.001$).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대 우울여부와 30대 우울수준이 통제변수들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166$, $p=0.000$). 다음으로는 성별과 30대 우울수준이 유의미한 상관관계($r=-0.085$, $p=0.017$)를 보였다. 이외의 통제변수인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은 30대 우울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9> 변수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	20대 우울여부	20대 사회적친분 관계만족도	30대 역할 만족도	30대 우울수준
성별	1								
20대 연령	0.074* (0.033)	1							
20대 교육수준	0.002 (0.949)	-0.106** (0.002)	1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0.065 (0.058)	-0.071* (0.41)	0.214*** (0.000)	1					
20대 만성질환	0.067 (0.051)	0.007 (0.831)	-0.152*** (0.000)	-0.108** (0.002)	1				
20대 우울여부	-0.023 (0.521)	-0.005 (0.8950)	-.085* (0.017)	-0.072* (0.044)	0.070* (0.048)	1			
20대 사회적친분 관계만족도	-0.012 (0.742)	-0.001 (0.975)	0.194*** (0.000)	0.033 (0.359)	-0.119** (0.001)	-0.154*** (0.000)	1		
30대 역할 만족도	-0.022 (0.529)	0.008 (0.818)	0.059 (0.097)	0.076* (0.033)	-0.18 (0.618)	-0.018** (0.001)	0.122** (0.001)	1	
30대 우울수준	-0.085* (0.017)	-0.062 (0.083)	-0.050 (0.158)	-0.009 (0.804)	0.042 (0.240)	0.166*** (0.000)	-0.109** (0.003)	-0.301*** (0.000)	1

*p<.05, **p<0.01, ***p<0.001

제 5 절 연구문제 검증

본 절에서는, 다른 통제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후,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과 30대 우울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함을 통해서, 30대의 발달과업성취정도가 20대의 발달과업성취정도와 30대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20대의 발달과업성취정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모형 1>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30대 우울수준

$$\hat{Y}_1 = a + b_1 D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D_6 + b_7 X_7$$

\hat{Y}_1 : 30대 우울수준

D_1 : 성별 (0=여자, 1=남자)

X_2 : 20대 연령

X_3 : 20대 교육수준

X_4 :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X_5 : 20대 만성질환

D_6 : 20대 우울여부 (0=비우울, 1=우울)

X_7 :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위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질문 1-1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모형 1]을 설계하였다.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0>와 같다.

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5.239로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1의 수정된 설명력은 0.038로 나타나, 모형1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수준을 약 3.8%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며($p=0.027$),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β 값은 -0.082로 나타났다. 즉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30대의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30대의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beta = -0.074$, $p=0.042$), 20대에 우울집단이 20대의 비우울집단에 비해 30대의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eta = 0.152$, $p=0.000$).

<표 10> 20대의 친밀감 → 30대 우울 수준

모형 1		종속변수 : 30대 우울 수준			
		B	표준오차	β	t값
절편		14.60	4.041		3.613*** (0.000)
독립변수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0.800	0.360	-0.082	-2.222* (0.027)
통제변수	성별 (0 = 여성)	-0.908	0.495	-0.067	-1.834 (0.067)
	20대 연령	-0.186	0.091	-0.074	-2.036* (0.042)
	20대 교육수준	-0.142	0.278	-0.019	-0.512 (0.609)
	20대 ln가구소득	0.090	0.337	0.010	0.266 (0.790)
	20대 만성질환수준	0.353	0.506	0.025	0.698 (0.486)
	20대 우울 여부 (1 = 우울집단)	2.803	0.672	0.152	4.171* (0.000)
R ²		0.047			
Adjusted R ²		0.038			
F		5.239(0.000)***			

*p<.05, **p<0.01, ***p<0.001

[연구문제 2] 30대의 발달과업성취는 20대의 발달과업성취와 30대의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본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질문 2-1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질문 2-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2]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모형 2>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30대 역할 만족도

$$\hat{X}_8 = a + b_1 D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D_6 + b_7 X_7$$

\hat{X}_8 : 30대 역할 만족도

D_1 : 성별 (0=여자, 1=남자)

X_2 : 20대 연령

X_3 : 20대 교육수준

X_4 :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X_5 : 20대 만성질환

D_6 : 20대 우울여부 (0=비우울, 1=우울)

X_7 :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1>와 같다.

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3.194로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2의 수정된 설명력은 0.02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형2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

족도는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약 2%정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며($p=0.006$),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β 값은 0.103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30대의 역할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대 우울집단이 20대 비우울집단에 비해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beta = -0.100$, $p=0.007$).

<표 11> 20대 친밀감 → 30대 생산성

모형 2		종속변수 : 30대 역할 만족도			
		B	표준오차	β	t값
절편		2.306	0.483		4.770*** (0.000)
독립변수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0.119	0.043	0.103	2.757** (0.006)
통제변수	성별 (0 = 여성)	-0.029	0.059	-0.018	-0.495 (0.621)
	20대 연령	0.003	0.011	0.010	0.263 (0.793)
	20대 교육수준	0.015	0.033	0.018	0.465 (0.642)
	20대 ln가구소득	0.057	0.040	0.052	1.408 (0.160)
	20대 만성질환수준	0.013	0.061	0.008	0.220 (0.826)
	20대 우울 여부 (1 = 우울집단)	-0.218	0.080	-0.100	-2.714** (0.007)
R ²		.029			
Adjusted R ²		.020			
F		3.194(0.000)***			

*p<.05, **p<0.01, ***p<0.001

다음으로는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질문 2-2 30대 역할 만족도는 30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2-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3]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모형 3>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30대 역할 만족도 → 30대 우울수준

$$\hat{Y}_1 = a + b_1 D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D_6 + b_7 X_7 + b_8 X_8$$

\hat{Y}_1 : 30대 우울수준

D_1 : 성별 (0=여자, 1=남자)

X_2 : 20대 연령

X_3 : 20대 교육수준

X_4 :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X_5 : 20대 만성질환

D_6 : 20대 우울여부 (0=비우울, 1=우울)

X_7 :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X_8 : 30대 역할 만족도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모델로, 매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모형3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12>와 같다.

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14.023로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3의 수정된 설명력은 0.122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형3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30대 역할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수준을 약 12.2%정도 설명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형1에 비해 8.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투입한 후,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145$). 하지만 30대의 역할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나타냈으며,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β 값은 -0.295 로 나타났다($p=0.000$). 즉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30대의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30대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beta = -0.072$, $p=0.038$), 20대 연령이 높을수록 30대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다($\beta = -0.071$, $p=0.041$). 또한 20대 우울집단이 20대 비우울집단에 비해 30대의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eta = 0.123$, $p=0.000$).

<표 12> 20대의 친밀감, 30대의 생산성 → 30대 우울 수준

모형 3		종속변수 : 30대 우울 수준			
		B	표준오차	β	t값
절편		20.344	3.919		5.191*** (0.000)
독립변수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0.504	0.346	-0.052	-1.458 (0.145)
매개변수	30대 역할 만족도	-2.491	0.294	-0.295	-8.485*** (0.000)
통제변수	성별 (0 = 여성)	-0.981	0.473	-0.072	-2.074* (0.038)
	20대 연령	-0.179	0.087	-0.071	-2.049* (0.041)
	20대 교육수준	-0.104	0.265	-0.014	-0.391 (0.696)
	20대 ln가구소득	0.231	0.322	0.025	0.717 (0.474)
	20대 만성질환수준	0.386	0.484	0.028	0.799 (0.425)
	20대 우울 여부 (1 = 우울집단)	2.260	0.645	0.123	3.503*** (0.000)
R ²		0.132			
Adjusted R ²		0.122			
F		14.023(0.000)***			

*p<.05, **p<0.01, ***p<0.001

다음으로는 연구문제2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연구질문 2-3 30대의 역할 만족도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30대 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와 bootstrapping를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 13>와 같다.

<표 1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Effect	SE	z		p	
Sobel test	-0.296	0.113	-2.606**		0.009	
	Effect	SE	t	p	LLCI	UCLI
Total effect of X on Y	-0.800	0.360	-2.22*	0.026	-1.5069	-0.0931
Direct effect of X on Y	-0.504	0.346	-1.459	0.145	-1.1829	0.1745
Indirect effect of X on Y (Bootstrapping)	-0.296	0.117			-0.5620	-0.0960

*p<.05, **p<0.01, ***p<0.001

결과를 보면 Sobel test와 Bootstrapping모두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22$, $p=0.026$). 하지만 20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t=-1.459$, $p=0.145$),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LCI=-0.5620$, $UCLI=-0.0960$). 이는 완전

매개 모형으로 평가되며, Zhao et al.(2010)의 기준에 의하면 간접만 매개(indirect-only mediation)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또한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통해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총 효과 -0.80중 약 37%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Zhao et al.(2010)는 매개의 종류를 보충매개(complementary mediation), 경쟁매개(competitive mediation), 간접만 매개(indirect-only mediation), 직접만 비매개(direct-only nonmediation), 무효과 비매개(no-effect nonmedi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 6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대의 발달과업 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3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이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기 우울과 관련되어 어떠한 예방적 개입이 20대에 필요한지를 탐색해보기 위하여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20대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20대의 발달과업 성취가 30대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30대의 발달과업성취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인기의 우울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발달과업에 주목한 이유는 Eric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Erickson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연령별로 요구되는 발달과업이 다르며, 발달과업이 적절히 성취되지 않을 경우 자아발달에 손상이 생겨 부정적인 자아특질인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30대의 발달과업성취는 20대의 발달과업성취와 30대의 우울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위의 두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Erickson의 발달 이론과 성인기 초·중기의 우울, 관계만족과 우울, 역할 만족과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에 답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와 Sobel test를 활용하였고, 좀 더 보수적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hrout & Bolger(2002), Hayes(2009)가 제시한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재검증하였다.

연구 질문의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질문1-1]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수준, 20대 우울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20대의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7$). 이러한 결과는 Erickson(1950)의 발달이론으로 예측한 발달과업 성취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질문 2-1]은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수준, 20대 우울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6$). 이는 Erickson(1950)이 주장한 점성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20대의 친밀감과 관련된 발달과업성취가 다음 단계인 30대의 생산성과 관련된 발달과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연구질문 2-2] 30대 역할 만족도는 30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을 검증하였다. 성별, 20대 연령, 20대 교육수준, 20대 로그화한 가구소득, 20대 만성질환수준, 20대 우울여부, 20대의 친분관계 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30대의 역할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또한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본 모형에서,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145$). 이는 20대의 친밀감이 30대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쳐,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나며, 30대의 역할 만족도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질문 2-3] 30대의 역할 만족도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Sobel test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p=0.009$),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서도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LCI=-0.5620, UCLI=-0.0960). 즉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통해서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만 매개하는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Erickson(1950)이 주장한 점성적인 발달의 특성과, 발달과업이 부정적인 특질인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합의

본 연구는 20대의 발달과업 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3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이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검증한 결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합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합의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합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20대의 변인을 Eric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탐색하였다. 국내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많으나, 한 가지의 이론을 연구의 근거 기반으로 적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Erickson의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발달과업의 낮은 성취는 부정적인 자아특질로 이어지나, 발달과업의 적절한 성취는 긍정적인 자아특질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Erickson의 발달이론을 통한 변인 탐색은 우울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모형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Erickson의 발달과업 중 ‘친밀감’과 ‘생산성’에 주목하였다. Erickson의 발달과업 중 우울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설명되어 있는 ‘자아정체감’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에서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부적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김형수 외, 2010; 이정선 외, 2012; 조준범 외, 2010), 성인기 초기에 포함 되는 대학생이

나 성인 진입기 여성²⁸⁾을 대상(하주영, 2010; 김누리 외, 2017)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40-64세의 성인기 후기 연령(김순이 외, 2007)과 노년기에서도(김동배 외, 2005)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성인기 초기의 ‘친밀감’과 ‘생산성’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Erickson이 주장한 발달과업 중 성인기 초기·중기에 대한 발달과업을 재조명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둘째, 성인기 초·중기 시기의 대상을 조명하여, 본 시기의 우울과 관련 변인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의 대부분의 우울연구는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기 초·중기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성인기 초기의 우울에 대해서는 대학생으로 대상을 제한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성격 및 유전적 요인과 우울의 관련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국적 규모의 데이터인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20대와 30대의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울과 관련된 사회적 변인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를 관심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적 개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소를 탐색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비록 단순한 형태이나,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20대’의 발달과업 성취정도가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서, 발달과업 성취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과 관련해서 종단적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울의 ‘예방’적 개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과 관련한 증거기반의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 우울에 미치는 과거의 사회적 변인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우울과 관련된 종단적 연구가 아직 많지 않으며, 특히 성인기 초·중기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

28) 해당 연구에서 성인진입기 여성은 19~24세의 여성을 의미한다(김누리 외, 2017).

적인 방식을 통하여 성인기 초·중기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어떠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가와 관련된 탐색을 시도한 연구인 것에 의의를 둔다.

넷째, 30대의 발달과업이 20대의 발달과업과 30대의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통하여 30대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검증은 20대의 발달과업이 30대의 우울에 주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연령별로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우울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실천적 함의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대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대의 발달과업 성취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30대의 우울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발달과업 중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20대의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구체성이 매우 모호한 것이 실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을 살펴보면, 우울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은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신건강 자가관리(self care)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공익광고

및 정신건강의 날 지정’, ‘학교, 사업장 및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 교육 강화’, ‘우울/불안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및 상담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보제공이나 진단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나 우울/불안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는 우울증 스크리닝 및 의료기관 연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우울증 대상자의 발굴 및 자원연계에 대한 개입수준을 제안하는 것이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신건강 자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자가진단하고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신건강 자가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 프로그램’ 마련을 하나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근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치료, 수면/위생관리, 명상, 이완 요법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 교육강화와 관련하여서도 정신건강 교육과 강좌를 진행하겠다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어떠한 내용의 교육과 강좌를 제공해야하는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대를 대상으로 우울예방을 위해서 친밀감, 즉 사회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시로 살펴보면, 대학 상담센터에서는 사회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대인관계 프로그램’(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홈페이지, 2017), ‘커뮤니케이션 향상’. ‘건강한 성과 데이트 코칭’ 등(서울교육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홈페이지, 2017)의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중에서도 상담센터는 제한적으로만 개설되어 있다²⁹⁾. 또한 대학생 외에 졸업자, 대학미진학자

29) 현재 190개의 대학상담센터가 개설되어 있다(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2017)

등의 성인기 초기 대상자들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 성취를 도모하고, 우울을 예방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는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항목으로 자조모임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건전음주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대학 내 동아리, 학회 등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조모임의 목적을 ‘인식개선, 건전음주 문화’등 협소하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목적으로 둔 자조모임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하였듯, 성인기 초기의 서비스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외에 졸업자,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외의 성인기 초기의 대상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기관이 거점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통하여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20대의 발달과업성취정도는 30대의 우울에 영향을 끼치지만, 30대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30대의 역할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대 연령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면, 30대 연령에 대해서는 역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보았듯 발달과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성인기 중기의 중요한 역할은 직업과 가사 및 양육임을 밝혔고, 이로 인해 본 절에서는 30대의 주된 역할은 직업이나 가사 및 양육과 관련된 부분임을 가정하며, 실천적 함의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는 30대 연령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 중심의 접근을 확장시켜, 지역사회기관과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에서도 성인기 중기의 직업생활과 가사 및 양육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신과적 문제 스크리닝 혹은 증상관리 차원에서의 개입방안만 명시하며,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기 중기의 우울 예방 및 증진을 위해서는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을 적절히 성취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센터는 현재 취업자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실업자의 직업훈련 및 연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재직자에 대한 서비스도 직업훈련적인 성격이 강하다³⁰⁾. 따라서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대상자들의 우울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훈련 외에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 및 양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역사회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도 부모 대상 자녀 양육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산모의 산전·후 우울증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과적 증상적인 면과 관련된 부모 교육으로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부모 혹은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0)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가 하나의 예시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7)

즉, 성인기의 우울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분야의 개입 범위를 우울의 진단, 증상관리 등의 질환중심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나 직업, 가사 및 양육과 관련된 사회 환경적인 개입 또한 정신건강분야에서 필요한 개입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20대의 발달과업성취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30대의 발달과업성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과의 관계만족도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만을 측정하고 있을 뿐이다. 역할 만족도 또한 어떠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여부와 비경제활동사유 문항을 통해 본 항목에 대해서 직업이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조사응답자들이 어떤 역할을 토대로 본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표기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역할이 중복될 경우 어떠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였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 측정이 5점 척도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range)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5점 척도만으로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정보의 제공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게 된다.

둘째, Erickson이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발달과업의 ‘친밀성’과 ‘생산성’을 조작화하여 정의하는 가운데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신분석모델에서 발전된 Erickson이 발달과업의 정의는 다소 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Erickson이 정의하고 있는 ‘친밀감’과 ‘생산성’을 어떻게 조작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Erickson의 발달과업을 조작화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친밀감’과 ‘생산성’에 대한 변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친밀감’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라는 변수로, ‘생산성’을 ‘역할 만족도’라고 설정한 것에 대한 부분도 Erickson이 정의하고 있는 발달과업을 충분히 조작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자료 자체에서는 30대의 역할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Eric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30대의 역할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끼쳤다는 방향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자체만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방향성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독립변수인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선행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30대의 역할 만족도와 30대의 우울수준은 같은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30대의 우울수준이 30대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넷째,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굉장히 단순한 통계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한 시점에서만 측정하고 있으며, 20대의 전반적인 친분관계 만족의 정도나 궤적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30대의 역할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30대의 한 시점에 대한 역할 만족도만을 측정하고 있을 뿐, 30대 전반적인 역할 만족도의 정도나 궤적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종속변수인 우울 또한 한 시점에서만 측정하였을 뿐, 성인기 초·중기의 전반적인 우울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아동기, 청소년기 등 성인기 초기전의 발달과업 성취정도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rickson의 점성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성인기 초기 이전의 발달과업의 성취정도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 성취정도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나, 자료의 제한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나, 어떠한 변인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면,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때의 구체적인 개입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생애주기별로 발달과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이 성인기 중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위 관계에서 성인기 중기의 발달과업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성인기의 발달과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복지패널이 11차까지 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으로 최대 10년간의 차이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가 누적되어 Erickson이 제시한 8단계의 발달과업이 다음 단계의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다면, 생애주기별로 발달과업과 우울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한 구체화되고 정교화된 조작적 정의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Erickson의 발달과업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변수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나 역할 만족도가 어떤 관계 혹은 역할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이에 전반적인 관계 및 역할 만족도에 대해 측정하는 동시에, 특정한 대상이나 역할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고 각 구분 영역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5점 척도보

다 범위가 큰 척도를 활용한다면 제공하는 정보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Erickson의 발달과업의 정의를 더 분명하게 반영하는 변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교한 통계적 방법을 통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30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규명하였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역할 만족도, 우울수준을 한 시점에서만 측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20대에서 30대로 변화하는 시점의 차이 가운데에서, 궤적이나 변화정도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시점 변화 속에 담긴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기 초·중기에 대한 발달과업을 설명하는 이론은 Erickson외에 다양한 학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 성취가 성인기 중기의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초기단계의 연구이므로, Erickson의 이론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Erickson외의 학자들이 주장한 발달과업과 관련된 변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이 30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 30대의 발달과업이 20대의 발달과업과 30대의 우울수준을 매개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실증자료인 ‘한국복지패널’ 1차와 1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로, 30대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은 ‘역할 만족도’로 조작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30대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30대의 역할 만족도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30대의 우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만 매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성인기 초·중기를 대상으로 Erikson이 주장한 발달이론의 적용이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발달과업의 성취가 부정적인 자아특질인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Erikson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전단계의 발달과업이 다음 단계의 발달과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Erickson의 점성적 발달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기 중기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기 초·중기에 어떠한 변인에 대해 개입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30대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대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30대에 대해서는 과거의 발달과업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뿐 아니라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역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개입 범위를 진단, 증상관리의 협소한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역할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범위까지를 포함한다는 인식확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과업을 적절히 성취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

인 자아특질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아특질을 발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따라서 발달과업의 성취와 우울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울에 대한 예방적 측면 뿐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써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및 사이트

- 강상경,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30(1), 332-355.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 · 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100.
- 강상경, 정은희, 김병수 (2015). 복지패널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우울계적 불평등과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241-270.
- 고명진, 김호영 (2017). 배우자 지지와 갈등이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성차.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1(1), 8-16.
- 고승덕, 손애리, 최윤신 (2001).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1), 3-10.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2017).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 <http://www.wor.k.go.kr>.
- 관계부처합동 (2016).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가건강정보포털 (2017). 질병정보: 우울증. <http://health.mw.go.kr>.
- 권중돈, 김동배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권태연 (2015). 아동·청소년 우울 예방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6(3), 35-64.
- 권호인 (2012).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의 예방 개입에 대한 고찰. **인지행동치료**, 12(1), 21-31.

- 김경애, 황혜원 (2010).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1), 143-168.
- 김기현 (2015). 한국의 청년 고용 현황과 니트 국제비교.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 한국과 일본에서의 취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세미나 자료집**, 63-77.
- 김누리, 신나나 (2017).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0(2), 19-42.
- 김다래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무만족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3), 175-204.
- 김동배, 손의성 (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회**, 25(4), 167-187.
- 김문정 (2016).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부부친밀감, 분만 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8(5), 1329-1338.
- 김순이, 이정인 (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103-109.
- 김시경, 이상익, 신철진, 손정우, 엄상용, 김현 (2008). 초기 성인기 우울증에 대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15(1), 14-22.
- 김연희, 김선숙 (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103-127.
- 김은정, 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정선, 신경림 (2004).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34(2), 352-361.

- 김중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 (1982). 한국에서의 평생교육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노총**, 83.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3-793.
- 김진영 (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 89-113.
- 김형수, 김용섭 (2010).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우울간 경로분석. **지역사회연구**, 18(3), 155-171.
- 박아청 (2005). 에릭슨의 ‘생식성’개념의 의미에 대한 인류학적 검토. **교육인류학연구**, 8(1), 39-56.
- 박아청 (2007). 에릭슨의 인간형성론의 발달이론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 26(2), 143-163.
- 박영례, 장은희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 25(5), 549-559.
- 박은옥 (2011). 제주지역 성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농촌의학·지역정신보건**, 36(1), 25-35.
- 박재규, 이정림 (2011).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9, 99-128.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6).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2017). 연령에 따른 특이한 우울증상.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홈페이지 (2017). 프로그램 : 문화특강, 캠퍼스 멘토링. <http://life.snue.ac.kr>.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홈페이지 (2017). 역량개발 : 대인관계역량개발 프로그램. <http://snucounsel.snu.ac.kr>.
- 성준모 (2010a).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109-132.

- 성준모 (2010b).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10-133.
- 송명자 (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지영, 백종우, 김종우 (2008).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조기발견 및 관리모형 개발.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 용역보고서**, 1-141.
- 안숙희 (2004). 여성의 취업여부와 사회적 역할 만족도에 따른 건강 상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1), 23-31.
- 엄태순, 김현실 (2013).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135-158.
- 염소림, 최유석 (2014).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4(9), 255-266.
- 우영섭, 홍진표 (2013). 증상. **우울증**. 대한우울 · 조울병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유성원, 손상준, 배활립, 국소담, 김현수 (2014). 일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우울 및 인구사회적 요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8(1), 26-31.
- 이미숙 (2010). 도시거주 노인의 만성질환과 우울증세의 상관성 및 사회관계망의 효과에 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7, 5-30.
-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4(3), 77-89.
- 이평숙, 이용미, 임지영, 황라일, 박은영 (2004). 노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 **한국간호과학회**, 34(3), 477-484.
- 이혜경, 남춘연 (2015).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심리적 행복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4). 490-498.
- 이현주 (2013). 노년기 우울의 종단적 변화 : 연령집단별 차이와 위험요인. **노인복지연구**, 61. 291-318.

- 이현주, 정은희 (2016). 생애과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건강: 초기 성인기 및 중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중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53-84.
- 임지혜 (2014). 노인의 우울증세와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481-490.
-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홈페이지(2017). 전국대학교 상담센터 현황. <http://www.ccus.kr/>.
- 전진아(2014a). 복합 정신질환(comorbidity)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241.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진아 (2014b). 한국 성인의 성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7-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진아, 이난희 (2015). 한국복지패널자료로 살펴본 우울과 만성질환의 동반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보건복지포럼**, 75-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 (2017).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보건복지포럼**, 51-6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옥분 (2015).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은희 (2015). 한국사회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 사회 원인 가설과 선택가설 검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조옥희, 황경혜 (2017).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수용, 수면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329-338.
- 조은영, 정태영 (2005).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 지향성 차이 - 관계와 과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352-353.
- 조춘범, 김동기 (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 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 조현승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7(1), 33-53.
- 최미경, 이영희 (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지지 및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건강간호학회지**, 19(2), 196-204.
- 통계개발원 (2016). 국민 삶의 지표: 지역사회 소속감. kostat.go.kr.
- 통계청 (2015). 사망원인통계. kostat.go.kr.
- 통계청 (2016).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kostat.go.kr.
- 통계청 (2017a).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 kostat.go.kr.
- 통계청 (2017b).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kostat.go.kr.
- 하주영 (2010). 대학생의 음주문제,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성인간호학회지**, 22(2), 182-189.
- 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C., Marks N. (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2(2), 209-22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6). **2006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혜림, 이지민 (2017).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족 내 역할 인식 및 부친밀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일-가정양립 인식의 매개 효과: 잠재성장모형 및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3), 263-274
- 허만세, 박병성, 배성우 (2015). 한국어판 축약형 CES-D 척도의 측정불변성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2), 313-339.

2. 국외문헌

- Allen, L. M., Nelson, C. J., Rouhbakhsh, P., Scifres, S. L., Greene, R. L., Kordinak, S. T., Davis, L. J. & Morse, R.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factor structure of the Self Administered Alcoholism Screening Tes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4), 439-44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lle, D. (1990). Poverty and women'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5(3), 385-389.
- Bradley, D. E. & Roberts, J. A. (2004). Self 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investigating the role of self efficacy, depression, and seniorit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1), 37-58.
- Brown, G., and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London : Tavistk Press.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oherenwend, B. P., Levav, I., Shrout, P. E., Schwartz, S., Naveh, G., Link, B. G., Skodol, A. E. & Stueve, A. (1992).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iatric disorders: The causation-selection issue. *Science, New Series*, 255(5047), 946-952.
- Erickson, H.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ckson, H. E. (1959). *Identity and the Lifecycl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rickson, H. E. (1968). *Identity Youth & Crisis*. New York: Norton.
- Evans, R. I. (1969). *Dialogue with Erick Erickson*. New York: E. P. Dutton, 11-58.
- Gallo, L. C., Bogart, L. M., Vranceanu, A. M., & Matthews, K. A. (2005). Socioeconomic status, resources, 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emotional responses: a test of the reserve capacit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2), 386-399.
- Gujarati, D. N., & Porter, D. C. (2010). *Essentials of econometrics(4th ed.)*. New York: McGraw-Hill/Irwin.
- Hall, E. (1983). A conversation with Erick Erickson. *Psychology Today*, June, 22-30.
- Hamilton, V. H., Merrigan, P., & Dufresne, E. (1997). Down and out: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unemployment. *Health economics*, 6(4), 397-406.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Judge, T. A., Thoresen, C. J., Bono, J. E., & Patton, G. K. (2001). The job satisfaction - job performance relationship: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7(3), 376-407.
- Kaplan, G. A., Shema, S. J., & Leite, C. M. A. (2008).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income, income change, and income sources during the course of 29 years. *Annals of epidemiology*, 18(7), 531-537.

- Kessler, R. C., Foster, C., Webster, P. S., & House, J. S.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wo national surveys. *Psychology and aging*, 7(1), 119.
- Klerman, G. L. (2002). **대인관계치료** (이영호, 박세현, 이혜경, 정효경, 황을지, 허시영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4).
-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 Kraus, S. J. (1995). Attitude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A meta-analy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1), 58-75.
- Lantz, P. M., House, J. S., Mero, R. P., & Williams, D. R. (2005). Stress, Life Events,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Results from the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3), 274-288.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
- Matthews, T., Danese, A., Wertz, J., Odgers, C. L., Ambler, A., Moffitt, T. E., & Arseneault, L. (2016).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a behavioural genetic analysi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1(3), 339-348.
- Myers, R. H. (1990).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s (2nd ed.)*. Boston: PWS-KENT.

- Mills, T. L., & Henretta, J. C. (2001). Racial, ethnic, and socio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sychosocial distress among older Americans. *Research on Aging*, 23(2), 131-152.
- Mirowsky, J. & Ross, C. E.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7-205.
- Mirowsky, J. (1996). Age and the gender gap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2-380.
- Mirowsky, J. & Kim, J. (2007). Graphing age trajectories: Vector graphs, synthetic and virtual cohort projections, and virtual cohort projections, and cross-sectional profiles of depress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5(4), 497-541.
- Moore, S., Lindquist, S., & Katz, B. (1997). Home health nurses: Stress, self-esteem, social intimacy, and job satisfaction. *Home Care Provider*, 2(3), 135-139.
- Moussavi, S., Chatterji, S., Verdes, E., Tandon, A., Patel, V., & Ustun, B. (2007). Depression, chronic diseases, and decrements in health: results from the World Health Surveys. *The Lancet*, 370(9590), 851-858.
- Muchinsky, P. M. (2006). **산업 및 조직심리학** (유태용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5).
- Norris, F. H., & Murrell, S. A. (1984). Protective function of resources related to life events, global stress,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4-437.
- Ostroff, C.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ttitudes, and performance: An organizational leve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6), 963-974.

- Pabayo, R., Kawachi, I., & Gilman, S. E. (2014). Income inequality among American states and the incidence of major depression.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8(2), 110–115.
- Schieman, S., Van Gundy, K., & Taylor, J. (2001). Status, role, and resource explanations for age patterns in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80–9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 Taylor, H. O., Taylor, R. J., Nguyen, A. W., & Chatters, L. (2018). Social isolation,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30(2), 229–246.
- Tracy, M., Zimmerman, F. J., Galea, S., Mccauley, E. & Stoep, A.,(2008) What explains the relation between family poverty and childhood depressive symptom?.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14), 1163–1175.
- Veroff, J., Douvan. E. and Kulka, R. (1981). *The inner American*. New York : Basic.
- Weissman, M. M. & Klerman, G. L. (1977). Sex differences and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1), 98–111.

- Weissman, M. M., Bland, R., Joyce, P. R., Newman, S., Wells, J. E., & Wittchen, H. U. (1993). Sex differences in rates of depression: cross-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2), 77-84.
- WHO (2001). *Gender disparities in mental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2013).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 Zhao, X., Lynch Jr, J. G., & Chen, Q.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 Zunzunegui, M. V., Minicuci, N., Blumstein, T., Noale, M., Deeg, D., Jylha, M., & Pedersen, N. L (2007).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3), 198-207.

Abstract

The Influence of 20's Development Task Achievement on 30's Depression

Jang, Kibbeu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ocial burden of depression increases, preventive intervention of depression has gradually been getting attention. This preventive intervention plays an important role within a person's life cycle when carried out in his young adulthood stage and adulthood stage. It could promote socio-economic achievements in one's adult life and mitigate depression in his later years.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regarding preventive intervention of depression in Korean. Therefore, in this study, I intend to point out which factors of the 20's life influence the depression in the 30's and by doing so, expand the argument about preventive intervention of depression among the young adulthood stage and adulthood stage.

This study is based on Erickson's developmental theory, which

(1) concerns the influence of the 20's major development task, 'intimacy', on the 30's depression and (2) observes whether the 30's major development task, 'generativity',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s of 20's intimacy on 30's depression. In this study, I manipulated 'intimacy' into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to 'role satisfaction'. To estimate the degree of depression, I utilized the clinical scale of CES-D.

This study uses 'the 1st Korea Welfare Panel Study(2006)' and 'the 11th Korea Welfare Panel Study(2016)' for analyses. Based on 2005, the time of the first survey, I analyzed 748 people, ages 20 to 29, who are in their young adulthood stage. As an analytical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basically employed, and steps of Baron & Kenny's is employed to examine the mediation condition. To examine the significance test of the mediation effect, I utilized the Sobel test and Bootstrapping method.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The 30's depression was found to b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20'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lso, the 20'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influences on the 30's role satisfaction. Lastly, 20's social relationship was found to influence the 30's depression through the 30's rol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simple path to the 30's depression was found, starting from the 20's development task achievement, followed by the 30's development task achievement, which eventually leads to depression in the 30's.

In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mediation variable need more concreteness. Also, the

elaborate argument about operation definition of Erickson's development task is needed, due to a lack of prior study. Lastly, because of the simple statistic analysis method, this study did not reflect the degree of change of trajectory among 10 years of longitudinal data.

Nonetheless,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Erickson's development theory could be applied to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in their young adulthood stage and adulthood stage in Korea. Also,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which factors should be intervened to prevent depression of the adulthood stage. To prevent the 30's depression, we should seek th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hat can promote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the 20's. For those in their 30's, we should find social services to promote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which not only satisfies the developmental task of the past but also promotes role satisfaction related to mediation effects. For this purpose,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mental health intervention in social welfare, from the narrow range, such as diagnosis and symptom management, to the broad range of social environmental factor which could promote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ole satisfaction.

Key words : Depression, Erickson's development task, Intimacy, Generativity,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Role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6-20213